

칸 경쟁부문 진출 '버닝' 제작보고회 | 감독·주연 3인의 도전과 기대



영화 '버닝'은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더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스티브 연, 유아인, 전종서, 이창동 감독(왼쪽부터)이 24일 서울 강남 압구정CGV에서 제작보고회를 열고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미스터리 스릴러? 현실보다 현실같은 작품”

이창동 “내 고민과 맞아떨어진 영화”
유아인 “한 사람으로 깨어나는 느낌”
스티브 연 “감독의 세계는 요술같아”
전종서 “난 영광스럽고 얼떨떨할 뿐”

“우리, 미지의 세계로 빠져보자.”

이창동 감독은 영화 '버닝'을 시작하며 유아인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모호한 이야기와 캐릭터에 둘러싸인 영화이지만 이를 완성한 배우들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작품”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더 주목받는 '버닝'의 주역들이 24일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도전과 기대의 마음을 드러냈다.

●이창동 감독, 왜 '버닝'인가
8년 만에 신작을 내놓은 이창동 감독은

“미스터리 스릴러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 세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확장하는 작품”이라고 '버닝'을 소개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헛간을 태우다'가 원작인 영화는 서로 다른 위치와 처지인 세 명의 젊은이가 주인공이다. 이창동 감독은 “단편소설이 '시' 이후 영화를 만들려고 고민하던 내 문제와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연출 이유를 밝혔다.

이창동 감독은 이번엔 '청춘'에 주목한다. 작업 방식도 필름에서 디지털 촬영으로 바꿨다. 감독은 “영화가 스스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살아있는 현장이길 원했다”고 했다.

●유아인 '청춘의 얼굴'

유아인은 '베테랑'과 '사도'를 통해 폭발하는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은 배우. '버닝'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그는

유통회사 아르바이트생. 어릴 적 친구(전종서), 그 친구가 데려온 의문의 청년(스티브 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이끈다.

유아인은 “이창동이란 이름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며 “너무 하고 싶은 작업이었으니 더욱더 잘 해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역할을 두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청춘처럼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라며 “작업을 통해 한 사람으로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돌아섰다.

●스티브 연, '육자' 이어 '버닝'

미국드라마 '워킹메이들' 시리즈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스티브 연은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육자'로 한국영화를 처음 경험했고,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버닝'은 그의 두 번째 한국영화다.

“봉준호 감독이 '이창동 감독이 찾으니 얼른 전화해라'고 해서 '버닝' 출연이 이뤄졌다”고 밝힌 그는 “감독님과 만남이 내겐

큰 행운”이라고 했다. 이어 “감독이 지닌 사람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굉장하다”며 “'버닝'에선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겼고 그 경험 이 마치 요술 같다”고 했다.

●전종서 '볼 수 없던 원석'

24살의 전종서는 '버닝'으로 데뷔한다. 데뷔작으로 칸 영화제에 직행한 행운아. 기성 배우들도 탐낸 역할을 낚신 신인에게 맡긴 이유를 두고 이창동 감독은 “처음 본 순간 지금껏 볼 수 없던 배우가 원석 그 자체로 나타났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전종서는 '버닝'에서 경험 많은 배우라고 해도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감을 받고 있다. 이에 참여한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그는 제71회 칸에서 여러 질문을 받고도 “영광스럽고 얼떨떨하다”는 말 외엔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연예

13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킷



너무 과시한 우정

방송인 정준하와 연기자 김희선이 남다른 우정을 과시한다. 정준하는 “우리 희선이, 22년 지기”라며 김희선과 붙은 사진을 공개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둘의 조합은 낯설지만 다정한 분위기다. 팬들은 “의외의 친분이다” “월간법 무시”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인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정준하 #김희선 #남사친여사친 #우정

낮익은, 그래서 진부한 백종원표 요리에능

매력적 캐릭터 불구 다양성 부족 식상 여행기미한 '스트리트...' 시청률 1.7%

비슷한 포맷과 콘셉트의 '백종원 요리예능'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종원

백종원이 출연하는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는 23일 첫 방송에서 1.7%(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여행의 재미를 담아 백종원의 '식도락'을 보여준 다큐멘터리 형식의 연출은 감각적인 영상미를 만들어냈지만, 시청률은 저조했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어내지 못했다. 백종원이 출연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4%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백종원은 지난해 연말 종영한 tvN '집밥 백선생'도 이끌었다.

백종원은 요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물론 예능인을 능가하는 입담과 꾸준한 인성이 시청자에게 친근감을 줘 방송가에서 매력적인 예능 캐릭터로 평가받았다. 외식업체 더본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미국, 일본, 중국까지 진출한 중견기업의 운영자이지만 권위주의를 드러내지 않아 더욱 호감을 얻었다.

하지만 TV에서 백종원의 '떡방(먹는 방송)'과 '육방(요리하는 방송)'이 쉽 없이 반복되면서 그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그를 기용한 새 프로그램까지도 신선함을 어필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하고 있다.

백종원은 2015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으로 처음 주목받은 후부터 쉬지 않고 요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요리연구가라는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한때 예능계에서 '떡방' '육방'의 트렌드를 주도했지만, 상황이 나 대상만 달라질 뿐 백종원이 음식을 만들거나 시식 후 평가와 조언을 하는 콘셉트가 반복되면서 힘을 잃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걸그룹 멤버들, 뷰티 MC 영토 확장

걸그룹 멤버들이 본업인 음악을 넘어 각 방송사의 대표 뷰티 정보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새로운 영역확장에 나서고 있다. 연예계 생활에서 터득한 뷰티 노하우와 자기관리법 등이 뷰티 정보프로그램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최근 케이뷰티가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에서 인지도 높은 걸그룹 멤버들에게 잇따라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

카라 출신 구하라와 박규리는 최근 새롭게 시작하는 뷰티 프로그램에 메인 진행자로 발탁됐다. 두 사람은 데뷔 후 뷰티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책 발간과 칼럼 기고, 뷰티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이들이 또 한번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노하우를 전수한다.

구하라는 한 중편채널에서 방송 중인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서 톡톡 튀는 뷰티 관련 팁을 전달하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구하라는 전하는 메이크업과 화장품 고르는 법 등이 담긴 '꿀팁 동영상'이 인기다.

박규리 역시 5월3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하라

한선화

에서 공개하는 웹프로그램 '여자들의 은밀한 수다'를 진행한다. 동료 가수인 나인뮤지스 헤미도 출연한다. 현재 방송중인 케이블채널 KBSN '더 뷰티 어 워크'에 두 번째 뷰티 프로그램 출연이다.

시크릿 출신 한선화와 피에스타의 차오루는 뷰티 프로그램에 첫 도전한다. 두 사람은 케이블채널 라이프타임 뷰티쇼 '업!프리미'에 출연해 한선화는 메인진행자로, 차오루는 한선화를 돕는 보조 진행자를 맡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구하라·박규리·한선화·리지·연우... 연예계서 터득한 뷰티노하우 공개

두 사람은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관리는 끝이 없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메이크업이나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역시 뷰티 프로그램과 인연이 많다. '화장대를 부탁해' 등 다양한 뷰티프로그램에 출연한 리지는 지난달 27일부터 방송한 케이블채널 패션엔 '팔로우미' 시즌9에 출연 중이다. 평소 메이크업 학원까지 다니며 배운 각종 메이크업 팁을 시청자들에게 모두 공개한다.

최근 '대세'로 떠오른 걸그룹 모모랜드의 연우는 데뷔 후 처음으로 뷰티프로그램에 도전장을 냈다. 10일부터 방송한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송지효의 뷰티풀 라이프'에서 20대 초반 시청자들이 궁금할 법한 뷰티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아이돌과 뷰티는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걸그룹 멤버들이 참여하는 '뷰티 콘텐츠'는 앞으로 도 계속될 전망이다.

'변호사' 서예지, 13년 긴머리 싹둑

tvN '무법변호사'서 첫 액션 이미지 변신 위해 단발 변신

연기자 서예지가 이미지 변신을 위해 13년 동안 길었던 긴 생머리를 포기해 눈길을 끈다.

서예지는 5월12일 방송하는 tvN 토일드라마 '무법 변호사'에서 단발로 나온다. 극중 변호사 캐릭터를 위해 스스로 변신을 결정했다. 데뷔하고 줄곧 긴 생머리를 고수하면서 트레이드마크가 됐지만, 배역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

서예지는 2013년 케이블채널 tvN '감자별 2013QR3'을 통해 연기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긴 생머리 소녀'로 대중에게 각인됐다. 청순한 여성미를 매력 포인트로 내세우고 이후 '여강꾼 일지' '슈퍼대디 열' '화랑' '구해줘' 등에서



서예지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무법 변호사'에서는 과감하게 변신

했다. 극중 자존감이 높고 푹 부러진 성격의 변호사를 표현하는데 긴 생머리는 어울리지 않다는 판단에 자발적으로 변화를 줬다. 데뷔 후 처음으로 도전하는 액션 연기도 그의 변신을 부추겼다.

사실 연기력으로 캐릭터를 소화해도 충분하지만 연기자의 외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연기자 캐릭터와 어울리는 외모를 보여줄 때 시청자들의 몰입도는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서예지가 13년간 가꿔온 긴 생머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배역에 대한 애정과 각오가 남다르다는 것을 엿보게 한다.

제작사 한 관계자는 “서예지는 외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발음과 발성 등에도 신경 쓰고 있다. 또 촬영 틈틈이 연출자 김진민 PD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캐릭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이 웹툰 '머느라기'

SNS 팔로어 수만 64만명 이 시대 머느리의 로드맵

난데없이 머느리 열풍이다. 지상파 다큐멘터리가 머느리들의 '흔한' 일상을 그려내는 가하면 유명인 머느리의 삶을 관찰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얼마 전 극장에서는 'B급 머느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다. '시월드' '고부갈등' 같은 말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는 머느리의 일상사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으킨 결과다. 연기자 민지영, 개그맨 김재욱의 아내 박세미 등 '유명한 머느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MBC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도 화제의 연속이다.

머느리 열풍은 웹툰 '머느라기'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SNS에서 연재된 이 웹툰은 초보 머느리 민사린이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겪는 일상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머느리라면 누구나 겪어볼만한 일상사를 세밀하게 포착한 '생활 만화'가 같은 입장에 놓인 이 시대 머느리들은 물론 그들의 남편으로부터도 공감을 이끌어낸다. SNS 팔로어 수만 64만 명에 이른다.

'머느라기'라는 제목의 뜻도 흥미롭다. 웹툰을 쓴 수진시 작가가 정의한 '머느라기'는 다음과 같다.

“사춘기가 갱년기처럼 머느리가 되면 겪게 되는 머느라기라는 시기가 있다. 시댁 식구한테 예뻐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시기. 보통 1~2년이면 끝나는데, 사람에 따라 10년 넘게 걸리기도, 안 끝나기도 한다더라고.”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머느리라는 상징적 존재가 대중문화 콘텐츠로도 적극 활용된다.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를 기획한 박지아 CP는 우연히 본 '머느라기'가 프로그램의 출발이라고 밝혔고, 앞서 SBS는 'SBS스페셜'을 통해 '머느라기-화목하고 불편한 가족 이야기' 편을 방송해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분위기에서 올해 1월 개봉한 'B급 머느리'도 주목받았다.

웹툰 '머느라기'는 비단 결혼한 여성, 머느리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비혼 여성이 막연하게 상상하는 시월드와 머느리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도 한다.

이해리 기자